

폭탄 맞은 듯 ‘처참’...상층부 붕괴흔적 그대로

201동 내부 천장 내려앉고 무너진 잔해물 가득 피해 가족 “비협조적 현산, 수색에서 배제해야”

“콘크리트 양생이 덜 됐으니 다가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화정아이파크 201동 내부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다.

붕괴현장 곳곳에는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건물의 뼈대를 이루고 있던 철골 구조물 역시 옛 기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특히 소방당국의 통제에 따라 1층에 들어서자 희뿌연 연기가 눈앞을 가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시멘트 분진이 목과 코를 찔렀다.

유일하게 안전이 확보된 중앙계단은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비좁았고, 계단을 타고 도착한 10층은 여느 아파트 공사현장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20층 입구에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장비 보관과 구조대원들의 간이 휴게실로 사용되는 전진지휘소가 설치돼 있었다.

23층부터는 외벽이 떨어져 나가 밖이 훤히 보이고,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남쪽 벽으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크레인 방향(남동쪽)인 24층 2호실

은 천장 또한 절반 이상 내려앉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상층부로 향할수록 붕괴된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25층부터는 콘크리트 더미가 겹겹이 쌓여있었고 파이프와 전선, 철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구조단장은 위층에서부터 층층이 쌓인 형태인 ‘팬케이크(떡시루) 현산’이라 설명했고,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구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디서부터 내려앉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기울어진 채 벽을 이뤄 햇빛과 바람이 안 통하는 층도 있었다.

31·32층 남퍼러지 부근에는 잔해물이 제거된 채 노란색 라인이 그려져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남퍼러지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것이다.

옥상인 39층은 타워크레인 해체 등 붕괴 건물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빨간 펌프기와 양생용 활용되는 고체연료강통도 있었다. 양생이 덜 된 탓에 곳곳에 실금이 그어져 있었고 한 사진기자가 남쪽 방향으로 다가가지 소방단장이 다급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붕괴 현장 내부에 있는 동안 낙하물 주의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도 수 차례 울렸으며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더미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편,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원흉인 현대산업개발의 수색 작업 배제를 촉구했다.

가족협의회 대표 안 모씨(45)는 “수색 작업을 위해 어젯밤 소방대원들이 밤 10시까지 기다렸지만 함께 진입할 작업자가 없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며 “현산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산은 하루 8시간 근로 기준법을 지켜야 해서 인력 투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추가 수당을 주든지 인부를 더 고용해 투입하면 될 것”이라며 “가족들은 피가 말라가고 있는데 현산은 주간에만 구조 작업을 하는 등 수색에 비협조적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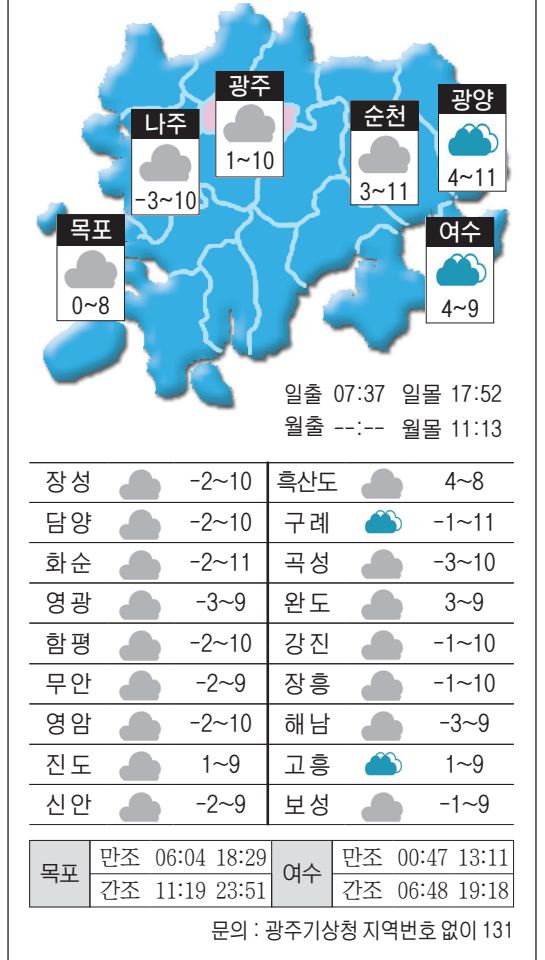
또한 “현산측에서는 ‘자기들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등 사기가 떨어져 힘들다’고 말한다”며 “사기가 저하된 집단에 우리는 구조를 맡기는 꼴이니 수색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산을 먼저 못하겠으니 가족들이 현장으로 들어가 수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현수막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23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안전한 구조작업을 위해 건물 상층부의 거꾸집인 RCS(Rail Climbing System)폼(오른쪽)을 제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오늘의 날씨



경찰, 붕괴 책임자 규명 수사 차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타워 크레인 해체 지연 등으로 책임자 규명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현산 분사와 하청업체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5명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이 진행돼 본격적인 수사 진행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붕괴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돼야 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상태 탓에 감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과실의 책임자로 의심되는 현산 관계자 다수가 현장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수색에 투입 중이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과 현재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향후 현산 관계자 소환 조사 때 책임성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인근 주민 ‘대피령’ 12일 만에 해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근 거주민들에게 내려진 대피령이 12일 만에 해제됐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붕괴사고 아파트와 인접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대피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12일째 숙박업소나 친척 집 등을 전전하던 주상복합 건물 주민 109세대 136명은 집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건물 1층에 입주한 40여곳의 상가는 중장비 등이 동원돼 구조 작업 등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대피령 해제에서 제외됐다. /홍승현 기자

오늘부터 24시간 수색 진행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부터 쉼 없이 진행된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3일 오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소방청 구조단과 현대산업개발 작업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대조를 편성해 수색 및 구조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날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27t 콘크리트 무게추와 55m 붐대를 안전하게 제거했고, 외벽이 보강을 완료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전도 위험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또, 외벽에 연결된 거꾸집(남쪽 1개, 동쪽 3개)



화정아이파크건설현장 피해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광주 서구청을 규탄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도 제거해 응벽의 붕괴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부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별로 슬래브를 받치는 책 서포

트를 설치 완료했다”며 “구조팀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하루 빨리 실종자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붕괴 일주일 전 책임자·현장소장 교체

작업자들 “현산 공사 재촉”...부실시공 의혹 뒷받침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직전 201동 책임자와 현장소장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사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이 바뀌었고 하도급업체 소속이던 201동 공사책임자도 교체됐다. 이 현장에는 1, 2단계에 각각 현장소장이 배치됐고, 단지 내 동마다 책임자를 한 명씩 두고 있었다.

다른 동 작업자들은 “201동 책임자가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고 일주일 전부

터 안 나왔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201동 책임자가 그만둔 후 새로운 책임자를 뽑지 못했고, 분사 직원이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지 현장소장의 경우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하며 근무했던 직원이 내부 승진을 하는 형태로 이날 초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법 등에 따르면 현장소장은 건설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책임진다. /홍승현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상담 061) 352-3010
문의 061) 872-8880,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